뜀박질 물가 … 가계부 쓰기 겁난다

광주, 물가 상승률 2.6% 전국 세번째

올해도 공공요금 들먹 서민가계 압박

주부 이모(43·광주시 남구 방림동)씨는 올해 가계부 쓸 일이 걱정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월급은 3년째 '제자리'인데 물가는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3월에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딸은 대학 입학까지 앞두고 있어 이래저래 올해 살림살이가 막막하기만 하다.

이씨는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 마당에 한층 높아진 전세금과 대학등록금을 맞추려면 당장 적금을 해약해야 할 형편"이라며 "기름값이나 공공요금 인상 소식을 들을 때 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말했다.

물가로 인한 광주·전남지역 서민들의 시름이 올해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공공요금과 석유류, 농축산물 등의 가격이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물가상승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장바구니 물가'로 통하는 생활물가가 지난해 말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1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내놓은 '2007년 광주·전남지역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광주의 소비자물가는 2.6%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2.5%)을 웃도는 것으로, 울산(2.9%), 충북(2.7%) 등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광주의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은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로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이 뛴 데다 도시가스, 교통요금, 학원비 등 공공·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말 과실·채소류의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농수축산물의 가격 급등도 전반적인 물가불안에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품목별로는 쓰레기봉투값이 1년새 28.3% 오른 것을 비롯, ▲자동차학원비(25.8%) ▲금반지(24.8%) ▲경유(23.1%) ▲대리운전료(17%) ▲시내버스료(16.7%) ▲전철료(15.3%) ▲대입학원비(14.6%) ▲대학교납입금(10.2%) 등이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귤과 딸기 가격도 각각 41.3%, 14.8%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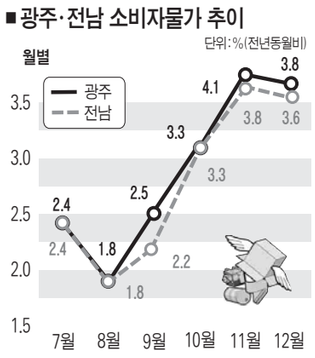
특히 광주는 지난해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가계운영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의 생활물가지수는 108.8로, 1년 전에 비해 5.0%p 상승했다. 전남도 지난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5.5%p에 달했다. 생활물가지수란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지수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을 나타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예측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5%보다 크게 높아진 3.3%에 달한다"며 "무엇보다 올해는 생필품과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물가안정 여부가 지역 경제회복의 최대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추이



광주지역 네티즌 75%

"올 부동산 거래 활발 해질 것"

절반이 "집값 상승"

광주지역 네티즌들은 새해 광주·전남의 부동산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광주지역 포털인 사랑방신문사 부동산팀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네티즌 1천61명을 대상으로 '새해 광주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3%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감소할 것'이란 응답은 5.7%에 그쳤으며, 18.9%는 '현 상태 유지'로 답했다.

집값에 대해서는 48.9%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답했으며 '보합세'는 24.9%, '하락세'는 22.0%로 각각 나타났다.

'새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59.4%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응답한 반면,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응답도 40.6%를 차지하는 등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 세제개편(57.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30.3%)', '청약제도 개편(9.5%)' 등의 순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당 2만원 인상

51만원으로 조정 … 양도세 등 세부담 늘듯

비거주용 일반건물의 신축가격 기준액이 2만원 인상돼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종전 1㎡당 49만에서 51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1일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된다.

국세청은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 상승분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증가율을 감안해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대상 건물의 기준시가는 1㎡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감가상각률)과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곱한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다시 곱해 산정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엑스포 유치 기념 예금증서 상업상호저축은행(은행장 강현섭)은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 기념' 정기예·적금 2천12번째 가입고객에게 201만2천원의 정기예금증서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상업저축은행은 엑스포 유치 이후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인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업저축은행제공〉

광주·전남중기청, 대학생 창업강좌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대학생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청년창업 촉진과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해 창업강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창업강좌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9일까지 중기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전국 총 60개 강좌(1학기 30개 강좌, 2학기 30개 강좌)이며, 지원금액은 3억원으로 강좌당 3학점 기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서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gj.smba.go.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062-360-9113)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농협중앙회 부장단 인사

공판지원부장 김수공씨

농협중앙회는 구랍 27일 새 회장을 선출한데 이어 1일 부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20면〉

이번 인사에서 김수공 전남지역본부 부본부장이 농업경제부문 공판지원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광주·전남출신으로는 신용사업부문에서 김용복(개인마케팅부장)·김태식(PB사업부장)·문경래(고객지원센터장)·김충수(신용보증기획부장), 교육지원부문에서 장석춘(중앙교육원장), 축산경제부문에서 정찬주(축산경제기획부장)씨 등이 이동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새얼굴

"고객중심 맞춤형 재해예방 앞장"

이 관 형 산업안전공단 광주본부장

"고객중심의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광주·전남지역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일 부임한 이관형(56) 한국산업안전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특히 체계적인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클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 이천 출신인 이 본부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 1977년 과학기술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뎠으며, 1991년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입사해 울산지도원장, 대구지역본부장을 거쳤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국세청 국장·세무서장 등 인사

조사 1국장	정호경
세원관리국장	공기수
납세지원국장	최영락
광주세무서장	배춘호
서광주세무서장	박순서

국세청은 1일자로 과장급 전보 38명, 초임 세무서장 16명, 사무관 승진 예정자 68명 등 12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20면〉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정호경 광주청 납세지원국장이 조사 1국장, 공기수 서광주세무서장이 세원관리국장, 최영락 여수세무서장이 납세지원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또 배춘호 순천세무서장은 광주세무서장, 박순서 해남세무서장은 서광주세무서장으로 이동했다.

이밖에 박석현(국세청 재정기획관실)씨가 여수세무서장, 신규석(광주청 법무과장)씨가 순천세무서장, 박득룡(서울청 개인납세1과)씨가 해남세무서장, 허명재(중부청 납세자보호 담당관)씨가 정읍세무서장에 각각 임명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무자년 부자되세요" 1일 서울 신세계 이마트 용산역점이 2008년 무자년(戊子年) 쥐띠해를 맞아 귀여운 쥐 캐릭터의 해피마우스 저금통 판매에 나섰다. /연합뉴스